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기독의사들

전 세계 기독의사들의 모임인 WCDN이 '제13회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이유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아무 죄없이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태(胎)의 문을 여시다

수년 동안 불임으로 고통받던 많은 가정이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와 출산의 축복을 받았다.

의학으로 밝혀지는 성령의 역사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사람의 몸을 익히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치유의 역사를 베풀고 계신다.

만민뉴스

제744호 2016년 6월 2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 기도받고 회복됐어요!” ‘스페인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 개최, 33개국 참가



WCDN 주최, '제13회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사진 2)에서 티모시 승 박사, 데이빗 유 박사, 로버트 와그너 박사, 지포라 은구미 박사(사진 1, 3, 8, 9) 등이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입증하는 풍부한 사례를 발표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사진 7). 조직위원장으로부터 WCDN 이사장 이재록 목사를 대신해 감사패를 받는 채윤석 회장(사진 4), 참석자들과 하나 된 크리스탈싱어즈의 공연과 기념촬영(사진 5, 6, 10, 11).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된 사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전 세계 기독의사들의 모임 WCDN(World Christian Doctors Network)이 올해는 스페인에서 열세 번째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지난 6월 10~11일 이틀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진행된 '제13회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는 미국,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이스라엘 등 33개국에서 300여 명의 의사들과 의학회 종사자들이 참석하였다.

국제 행사답게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총 4개 언어로 실시간 통역이 이루어졌다. 첫째 날, 현지팀의 찬양과 경배, 호세 가르시아 박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이어 참가국 소개, 조직위원장 주안 카를로스 솔라노

박사와 WCDN 회장 채윤석 박사의 인사말, WCDN 이사장 이재록 목사의 선교사역이 담긴 DVD 상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이틀간 이어진 사례 발표는 인도 자야 찬드란 박사의 척추결핵과 척추종양으로 인한 하지마비 치료, 말레이시아 티모시 승 박사의 급성 뇌염 치료, 케냐 지포라 은구미 박사의 척추골절 치료, 콜롬비아 로버트 와그너 박사의 담낭담석 치료, 싱가포르 데이빗 유 박사의 불임 치료, 한국 채윤석 박사의 요골신경마비 치료와 여상훈 박사의 무릎의 상 치료 등에 관한 것이었다(3, 4면 참조).

천지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도 치료하실 수 있기에 가능하다. 특히, 급성 뇌염 치료 사

례를 발표한 말레이시아 티모시 승 박사는 “뇌염으로 입원했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를 대신해서 지난해 말레이시아 콘퍼런스 손수건 집회 시 이재록 목사님에게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감사 이희선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환자의 식이 돌아오고 급속도로 회복되어 시공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지요.”라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외에도 특강으로 황준하 박사의 '창조와 과학', 미국 호세 두간드 박사의 '과학과 종교의 조화', 이스라엘 안드레 가지로우스키 박사의 '천국'에 관한 발표가 있어 흥미를 더했다. 또한 스페인 콘퍼런스 조직위원들은 WCDN 설립자인 이재록 목사에게 감사의 마

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한편,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크리스탈싱어즈의 다국어 찬양과 화려한 부채무용, 스페인 전통춤 등 다양한 공연은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기립박수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의학 자료를 통해 하나님의 치료 사례를 입증함으로써 성령이 참임을 증거하니 참으로 인상 깊고 감동스러웠습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에 본부를 둔 WCDN은 초교파적 기독의사들의 모임으로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해 세계 기독의사들과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다. 2017년 제14회 콘퍼런스는 러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
(이사야 53:5)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이유

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손과 발로 범하는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범죄한 손과 발을 자르지 않아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지옥 불에 던짐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으며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셨음을 정녕 믿는다면 다시는 손과 발로 범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믿음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예수님께서 아무 죄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질병과 연약함, 가난, 그 밖의 온갖 재앙에서 놓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항상 지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시험 환난이 왔다면 이는 축복을 위한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말씀한 대로 감사로 승리하면 영육간에 복이 임하게 되지요.

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시험 환난이 온 경우에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먼저 죄의 담을 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시험 환난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어려움이 온 경우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

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한 대로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죄를 범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없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치 않으려고 노력하며 빛 가운데 행해야 죄 사함 받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3.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 대한 기록이 차이가 나는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는 두 명의 강도가 달린 십자가도 서 있었는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했습니다. 이와 달리 누가복음 23장 39~43절에는 강도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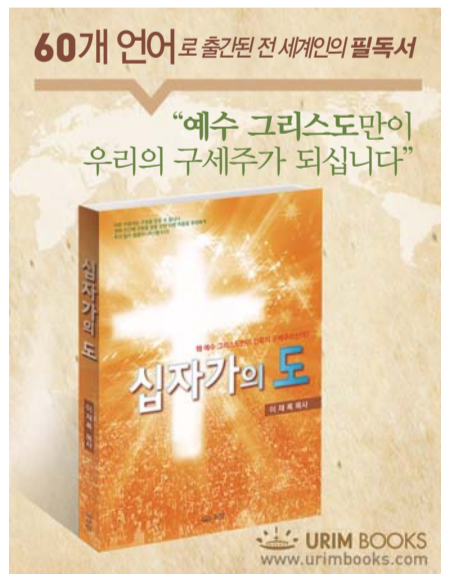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을 읽는 후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장면을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데 그 주변에는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려는 많은 군중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고, 로마 군병들은 창과 방패를 들고 밀려드는 군중을 막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강도 쪽에 서 있으면 그 말은 뚜렷하게 들리지만 반대편 강도의 말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는 강도를 향해 꾸짖는 모습이 멀리서 보기에 마치 그가 예수님을 향해 욕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회개한 강도 쪽이나 예수님 쪽에 있는 사람은 강도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 주셔서 기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차이가 있도록 허락하심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생생한 현장감 속에서 당시에 전개된 상황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를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깨닫고자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이유를 알았으니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구세주의 사랑이 담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손과 발이 되고, 성령의 감동 속에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WCDN SPAIN 2016

의학으로 밝혀진 하나님의 무수한 치유와 응답의 역사!

지난 6월 10~11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WCDN 제13회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 시 발표된 사례 중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 몇 가지를 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태(胎)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잉태의 축복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창세기 25:21)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헐고 권능의 종에게 기도를 받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다.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잉태되다

“...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대 ...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마태복음 8:8~13)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잉태되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12)



순간에 재창조 된 무릎 연골과 인대



학창시절, 미래가 촉망되는 축구선수였으나 무리한 연습과 경기 중 반복되는 무릎 부상으로 결국 열여덟 살에 축구를 포기하고 말았다. 그 뒤 무릎이 더욱 망가져 다리 경련과 통증으로 새벽에 잠을 깨기 일쑤였다. 마치 다리 근육을 양쪽에서 비틀어 쥐어짜고 그 중간의 무릎은 마치 여러 사람이 송곳으로 동시에 찢러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2014년 7월, 춘천만민교회 손수건 집회에 참석해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았는데, 그 뒤 아주 가볍하게 무릎을 굽히며 앉았다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와 함께 주변 근육이 찢어지는 것처럼 '찌지직!' 하는 파열음 같은 것이 들렸는데 그런 소리가 일체 없었다. 집회 후 교회가 있는 3층에서 1층까지 마치 뛰듯이 내려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후 지금까지 다리와 무릎에 전혀 이상이 없다.

박재홍 (48세, 한국)



▲기도 전: 내측 관절 면이 외측 보다 상대적으로 좁음.
▶기도 후: 후방 십자인대 후외측 인대가 치유됨.



김부삼 장로는 결혼 후 7년간 아이가 없었다. 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 만민중앙교회로 인도받아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잉태의 축복을 위해 2007년 1월에 믿음으로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았다. 그리고 2007년 11월, 그는 예쁜 딸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



김문홍 집사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6년 동안 의학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1999년 10월,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를 받을 때 그의 아내는 성령의 불이 머리부터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놀랍게도 곧바로 잉태되어 다음 해인 2000년 8월,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임수희 전도사는 결혼 후 13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 불임의 원인을 찾고자 해도 발견할 수 없었기에 결국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하고 입양을 생각하게 되었다. 2007년 시어머니의 전도로 만민교회에 출석한 그녀는 많은 사람이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잉태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기도를 받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다. 믿음이 없이 기도만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화평하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으며, 마침내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 잉태하여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프로모드 쿠마르 성도의 부인은 갑상선 문제로 유산을 몇차례 반복했다. 무당을 찾기도 하고 인도 전통의학에 의존해 보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2013년 인도 텔리만민교회로 인도받아 2014년 7월, 한국에 있는 이재록 목사에게 부부의 사진을 보내 잉태 기도를 받았다. 시공간을 초월한 사진 기도를 받은 후 그의 아내는 임신이 되어 결혼 14년 만에 첫 아이를 얻었다.



사토 히로미 성도는 결혼 후 수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불임클리닉을 찾아 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2013년 2월, 한국에 방문하는 도끼꾸니 미야꼬 담임목사 편에 예물과 자신의 사진을 보내며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2013년 5월, 시공간을 초월한 이재록 목사의 사진 기도를 받은 후 히로미도 성도는 임신을 하였고 예쁜 딸을 낳았다.



존 바브 성도는 결혼 후 4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중 2008년, 인도 첸나이만민교회의 전기, 수도 등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소망을 품었다. 2010년 12월, 첸나이만민교회에서 열리는 손수건 집회 소식을 듣고 참석해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은 뒤 그의 아내는 2011년 2월에 잉태하여 11월, 예쁜 딸을 낳았다.



오르텐스 반돔 성도는 1998년에 결혼하여 딸을 낳은 뒤, 풍진바이러스에 걸려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었다. 2008년, 킨사사만민교회에 등록한 그녀는 2009년에 열린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 초청 콩고 연합성회'에 참석하여 전체를 위한 손수건 기도(행 19:11~12) 시 잉태의 축복을 놓고 기도를 받았다. 그 뒤 임신해 아들을 낳았고, 이후에는 딸 쌍둥이를 낳아 네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뇌염으로 혼수상태에 빠졌으나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깨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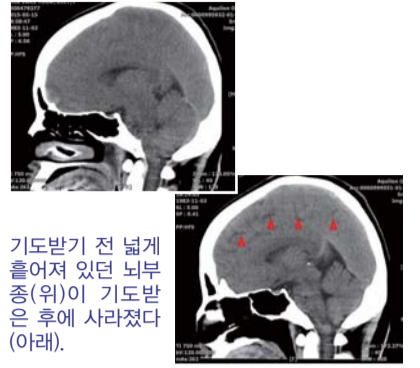
차스위윤 (32세, 말레이시아)



2015년 5월 14일 저는 두통과 고열, 구토로 병원에 입원했고 CT 진단 결과 뇌염이었습니다. 그런데 15일 아침부터 제가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지지 담당의사였던 티모시 승 박 사님은 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16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2회 WCDN 말레이시아 국제 기독교학 콘퍼런스'에 참석하신 박사님은 그 당시 집회를 인도하시는 강사님으로부터 저를 대신해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저는 꿈을 꾸었는데, 주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셨지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는 동시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받기 전 넓게 흩어져 있던 뇌부종(위)이 기도받은 후에 사라졌다(아래).



결핵성 척추염으로 하반신 마비였던 제가 운전을 하다니

반와리랄 (47세, 인도)



2012년 저는 결핵성 척추염으로 고통이 너무 심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하반신이 마비되어 혼자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도, 화장실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침대 위에서 해결해야만 했지요.

그러던 중, 아들이 다니는 인도 델리만민교회 담임 김상휘 목사님이 심방 오셔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으로(행 19:11~12) 기도해 주실 때마다 호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했더니 GCN 생방송을 통해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온전히 치료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삼륜자전거를 운행하는 일을 하며 교회에서도 운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받기 전 MRI: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하여 흉추 2, 3번이 손상됨.



하나님 권능으로 담석이 사라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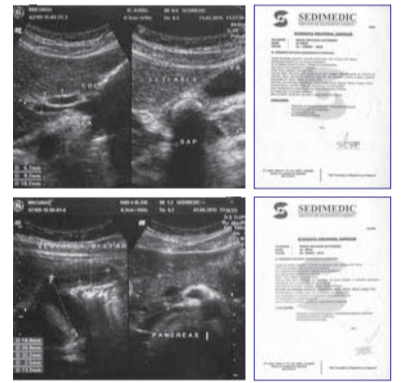
마리아 마꾸아도 (22세, 페루)



2014년 9월, 복부에 통증이 느껴졌고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는 담낭 안에 16 mm의 담석이 들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담임목사님에게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고 이후 더 이상 통증이 없었고 구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월, 다시 한 번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사는 담석이 18.2 mm로 더 커졌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져왔던 나쁜 생각들과 느낌들을 회개하였습니다. 그 뒤 꿈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담석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지요.

이후 초음파 검사 결과, 놀랍게도 담석이 발견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담낭 안에 있던 18.2 mm 담석이 사라졌다.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척추 골절이 급속도로 치료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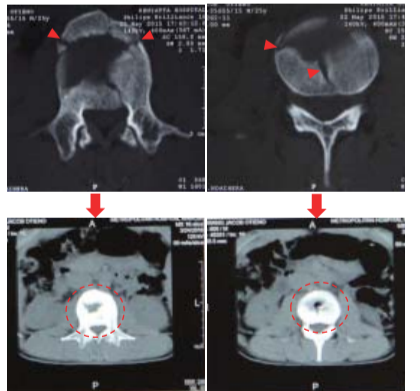
야곱 오티에노 오장 (27세, 케냐)



2015년 3월 23일, 4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중 목재가 부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등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어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척추 골절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다음 날인 24일, 정명호 담임목사님(나이로비만민교회)에게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은 뒤 마비된 다리와 허리에 감각이 느껴졌고 다리 통증이 사라져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 31일에는 믿음으로 퇴원했고, 그 다음 날 저희 집에 심방 오신 담임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에는 힘이 주어져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걸었지요.

이후 급속도로 회복되어 4월 23일에는 직장에 정상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CT결과: 기도받기 전(위)과 후(아래).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초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